

저소득층 자금 파이프 라인 막히나... 서민들 '헉헉'

모든 대출에 원리금상환액 반영 상호금융권 내년부터 공식 활용 금리상승 대비 '스트레스 DTI'도

지난해 10월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대출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음달 23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는 상호금융의 경우 소득이나 신용도가 높지 않은 서민들이 주 고객이란 점에서 체감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 상호금융도 간간한 DSR 적용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제도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다른 대출은 이자만 반영했던 것과 달리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한다. 기존 다른 대출이 있다면 신규 대출의 경우 가능한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은행권은 이미 올해 3월 말에 DSR을 도입했고, 오는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음 타자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됐다. 다음달 23일 DSR을 시범 도입한 후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공식 활용한다.

DSR 적용 대상이나 소득산정 방식에서 상호금융의 특성을 반영해 일부 예외를 뒀지만 큰 틀에서 간간한 대출심사를 빠져나가기 힘들다.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등 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DSR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담대 등 다른 대출을 받기 위해 DSR을 산정할 때는 정책자금과 서민금융상품도 부채에 포함되면서 대출문은 크게 좁아진다.

정부는 일단 상호금융권 DSR에 대해 확실적인 규제비용을 제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합이나 금고가 여신심사 전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리상승에 대비해 상호금융권 변동금리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DTI'도 도입한다. 약정금리에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스트레스금리를 가산해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방법이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넘을 경우 고금리로 취급하거나 80%가 넘지 않도록 대출금액을 줄여야 한다.

◆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도 강화

최근 빠르게 늘어난 개인사업자대출도 관리를 강화한다.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개인사업자대출에는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이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200억원이 넘는 조합과 금고는 업종 편중리스크 통제를 위해 매년 3개 이상의 관리업종을 선정해 한도관리를 해야 한다.

LTI는 개인사업자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산해 소득 대비 대출을 평가하는 여신심사 지표다.

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입대업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라는 대출규제가 더 추가된다. 앞으로는 연간임대소득이 연간이자비용의 1.25배(주택), 1.5배(비주택)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조합 및 금고 직원에 대한 집중교육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상호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경과〉

- ◆ 17.10.24.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신 DTI 도입, 소금융권 DSR 단계적 도입, 개인사업자대출 현장점검 및 DB 구축(17.12월), 부동산입대업자 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18.3월) 등 계획 발표
- ◆ 17.11.27. 금융위(원),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발표
신 DTI 도입, 소금융권 DSR 단계적 도입, 개인사업자대출 현장점검 및 DB 구축(17.12월), 부동산입대업자 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18.3월) 등 계획 발표
- ◆ 18.3.27. 상호금융정책협의회, DSR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계획 발표
- ◆ 18.3.26. 은행권, DSR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 ◆ 18.4.4. 금감원 및 5개 상호금융중앙회, T/F Kick-Off 회의
- ◆ 18.7.23. 상호금융권, DSR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예정)

〈은행권과 상호금융업권의 소득인정 범위 비교〉

은행	상호금융
(중빙소득)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좌동
(인정소득) 공공기관 등의 발급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를 바탕으로 추정된 소득	좌동+α (농·어업인 소득 추정자료 추가)
(신고소득)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된 소득으로 하되, 별도의 상환재원을 확인한 3천만원 이하 소득 대출 및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최저생계비의 제한적 활용 가능	좌동+α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추정소득 추가)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여름편' 4일 시민들이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여름편'이 내걸린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주변을 걷고 있다. 이번 문안은 채호기 시인의 시 '해질녘'에서 가져왔다. 붉게 노을 지는 저녁 풍경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아름답고 포근한 세상임을 느낀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교보생명

KB금융그룹-한국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 조성 맞손

KB금융그룹은 4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한국성장금융과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펀드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B금융의 사회적 책임 확대 방안인 'KB 드림스 커밍 프로젝트(Dream's Coming Project)'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서 KB금융과 한국성장금융은 향후 5년간 200억원씩을 출연, 총 10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조성된 펀드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KB금융 관계자는 "민간 최초의 사회투자 모펀드 조성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생산적 금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KB 드림스 커밍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과 우리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왼쪽)과 이동춘 한국성장금융 대표이사(오른쪽)가 4일 '사회투자펀드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

300억 투입... 저신용자 재기 돕는다

신한금융그룹은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저신용자 재기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2월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그룹사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사회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저소득층의 소득 활동 지원과 중소기업의 성장에 오는 2020년까지 총 2700억원 규모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이번 '저신용자 재기지원' 사업은 지난 1월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재기지원'과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구축' 사업에 이은 두번째 프로젝트이다.

'저신용자 재기지원' 사업은 ▲교육참여수당 지원 대상자 접수·지원과 저신용자 재기지원 사업운영(신한금융그룹) ▲저신용자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및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연계(서민금융진흥원) ▲저신용자 채무조정 지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금융 본사에서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부사장(왼쪽 첫번째)과 서민금융진흥원 최건호 부원장(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 안광현 사무국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원 및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지원(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한금융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3년간 총 300억 원을 투입해 신용위기와 실직상황에 놓여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동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180

만원 교육참여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저신용자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그룹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통해 모두의 꿈이 이뤄지는 희망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희망사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우리은행 주가지수연동예금 '우리챔프' 판매

우리은행은 오는 19일까지 주가지수연동예금 '우리챔프(Champ)복합예금 18년-9호'를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의 변동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는 예금이다.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양방향형, 상승형 2가지 유형이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모두 만기 해지시 1.7%의 이자율이 보장되고, 중도해지 할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로 인해 원금 손실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양방향형은 만기 시 주가지수가 기준시점 보다 상승했을 때와 하락한 경우로 나누어져 이자율이 결정된다. 상승한 경우 가입기간 중 매일의 증가가 10% 초과해 상승한 적이 없는 경우 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최고 연 3.5%를 지급하고, 10% 초과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만기해지시 연 1.7% 이자율을 확정해 지급한다.

반대로 만기 시 주가지수가 기준시점 보다 같거나 하락한 경우 가입기간 중 매



일의 증가가 10% 초과해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주가지수 하락률에 따라 최고 연 3.5% 지급하고, 10%를 초과 하락한 적이 있어도 만기해지시 연 1.7% 이자율을 확정해 지급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